

과거를 보고 미래를 걷다

4일간의 기억들

1일차: 동방명주와 역사박물관

상하이의 비상, 푸둥과 동방명주

상하이 푸둥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를 관람한 경험이 인상 깊습니다. 과거 낙후된 농지였던 푸둥이 어떻게 급속하게 발전해 세계적인 상업지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쯔강의 지류인 황푸강을 끼고 발달한 상하이는 오래전부터 중국 동부의 주요 항구도시로 기능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외국 조계지가 형성되며 도시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동방명주의 259m 전망대에서 IFC, 상하이 타워 등 황푸강을 따라 솟아있는 고층 빌딩을 바라보며, 상하이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한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로 만난 상하이의 과거

동방명주 전망대에서 내려온 후에는 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밀랍인형과 미니어처 모형을 통해 중국의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흐름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화려한 서양식 건물, 환전소 모형, 서양식 술집 등을 통해 조계지 시절 상하이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편에 취해 누워있는 중국인의 모습, 부의 양극화로 가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모습도 재현되어 있어 근대화 및 세계화에 따른 명암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1일차 요약

🌐 국제도시 🏢 근대화, 세계화 📖 직접 보고 느낀 역사

2일차: 김구피난처 매만가와 송성가무소

독립을 품은 강가의 집, 가흥 피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의 가흥 피난처를 방문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무고한 시민들까지 탄압하던 일제의 보복이 심해지자 김구 선생님은 일간지에 배후가 자신임을 밝히셨고, 이후 일제의 수색을 피해 가흥으로 몸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피난처는 뒤편에 강이 접해 있어, 유사시 배를 타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가흥 피난처를 둘러보면서 독립운동 당시의 비밀스럽고 긴장되는, 숨가쁜 시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 년의 이야기, 무대 위에 피어나다

저녁에는 중국 4대 공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연인 '송성 천고정'을 감상하였습니다.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송 황제의 연회, 악비의 영웅담, 백사전 전설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장대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수효과,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중국 문화의 웅장함과 스케일이 느껴졌으며 3부에서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의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2일차 요약

🏠 김구, 독립운동 🎭 전통과 현대의 융합, 공연예술

♥ 맛있는 휘귀



과거를 보고 미래를 걷다

4일간의 기억들

3일차: 서호, 화향관어와 황푸강 유람선

유유히 흐르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

서호 10경 중 하나로, 꽃과 나무가 만발한 정원이 화향관어를 방문했습니다. 연못에서 거대한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송나라 시기부터 이어진 정원 예술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직접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 항저우 서호를 탐방했습니다.호수와 어우러진 고산과 누각, 섬과 다리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 속에서 고대 시인의 감성과 정취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황푸강의 낭만적인 밤

저녁에는 상하이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황푸강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한쪽에는 유럽풍 건물이 늘어선 와이탄, 반대편에는 고층 빌딩이 빛나는 푸동의 스카이라인의 조화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빌딩 일부가 안개로 가려지기도 했지만, 학우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더욱더 유쾌하고 낭만적인 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3일차 요약

🌿 자연 속 힐링 🌿 고대 시인 감성 📷 빛으로 물든 밤

4일차:홍커우공원, 상해임시정부청사, 신천지

유유히 흐르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장소인 홍커우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시민공원이지만, 이곳은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일제의 주요 인사를 향해 폭탄을 투척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기에, 이에 이르러 하등 말할 것이 없다"는 마지막 말씀과 그에 깃든 결연함이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한편, 상해임시정부청사에서는 김구, 박은식, 안창호 등 선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좁고 열악한 공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주독립의 의지와 민족정신을 생생히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거리에서, 밀크티 한 잔~

과거 프랑스 조계지였던 건물들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거리 신천지를 방문했습니다. 신천지는 역사적 배경 위에 세련된 도시 문화가 더해진 장소로서, 트렌디한 상점, 카페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신 밀크티가 정말 맛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4일차 요약

☞ 윤봉길, 물병 폭탄, 독립운동 변곡점

☞ 6년간 항일운동 거점지

☞ 트렌디, 잊을 수 없는 밀크티의 맛

사색과 성장의 4일

— 28기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소감문

낮선 장소,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은 늘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역사문화탐방 역시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정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와 웃음, 같은 장면을 바라보며 공감했던 순간들 덕분에 점차 마음이 열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의 숨결을 따라 걷고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하이의 풍경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김구 선생의 피난처에서 마주한 조국을 향한 간절함, 황푸강 유람선 위에서 감상한 화려한 야경, 고즈넉한 서호와 잉어가 노니는 화항관어의 정취, 그리고 임시정부청사에 스며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은 그 어떤 책이나 영상보다 깊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촉과 역사적 성찰은 제 문예소양을 풍부하게 하고, 세계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이해하는 일이고, 그 이해는 더 나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지닌 학우들과의 대화와 협력은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정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늘 진심을 다해 안내해주신 인솔자분들, 교수님, 그리고 짧지만 깊은 시간을 함께해준 학우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낯설게 시작했던 이 여정은 어느새 마음 한 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저의 삶 속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는 귀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